

# 발명시문학의 고찰



김 관 형  
〈본회 상근이사, 시인〉

## 목 차

1. 머리글
2. 지적창작의 발명과 시
3. 발명시의 대두
4. 끝맺음

〈이번호에 전제〉

## 1. 머리글

예술의 본질적 구조에 관한 논의는 예술의 이성적 인식을 위한 기본적인 전제가 된다. 시문학은 인간생활속에서 역사의 흐름에 따라 다분히 상상과 창조, 자아의 표현을 해왔으며 언어학, 사회학, 인류학, 심리학 등 인접문학이 시학의 본질적 구조를 해명해 주기도 했다.

시는 원래 정조와 감동을 간직한 계층적 언어로서 사람의 마음을 예술적으로 표현한 문학이라고 볼때 인간의 정신을 근본으로 하는 심성의 본질에서 출발하는 것이고 서정적 자아찾기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발명에 있어서 발명자체는 상위적 개념으로 볼때 정신활동을 요소로 하는 기술적인 사고 즉 발명아이디어에서 출발하여 발명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발명은 하위개념인 산물(발명품)로 연결된다. 그러므로 시와 기술적 사상의 창작인 발명을 접목시킨 시문학의 탄생은 당연한 논리의 결실이다.

## 2. 지적창작의 발명과 시

시란 이 세상에서 처음 생각해 내는 창의이고 발명은 전에 없던 것을 처음 생각해 내거나 착상한 창작이므로 모두 지적창작이다. 시와 발명자체는 형이상학적인 면에서 마음으로부터 소생하는 무형인 정신활동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발명을 가지고 발명품을 제조하거나 생산했을때는 유형의 모양을 갖춘 물질적인 산물로서 이는 형이하학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발명의 인정은 발명품이나 물질을 만들지 않아도 새로운 기술적 사상으로 창작하여 이론적으로 입증이 되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특허제도에서도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고도한 것이라고 정의해 놓았다. 이러한 견지에서 시문학을 사중(四重)에 의해 살펴보고자 한다. 사중이란 ① 예술가의 경험-문제로서 다루는데 적절한 예술가의 경험이라든지 ② 비평의

기준에 있어서 잘못을 범하지 않았던 독자의 경험에 관해서 든지 ③ 이상적으로 가정하여 완전한 독자가 가질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경험에 관해서든지 ④ 우리 자신이 현실적으로 지니는 경험에 관해서 말하는 수가 있다. 이 네 가지는 대개 질적으로 다르다. 그러므로 시의 정의를 이 네가지 중에서 어느 하나를 택할 것이 아니라 “예술가의 경험”이라고 포괄적으로 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개념은 유사한 일군의 경험까지를 한 범위로 넣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경험은 우리가 완성된 시를 접할때 거기에 작품화 되어있는 시인의 경험인 표준경험이 상위의 정의일 것이다. 이러한 표준경험을 토대로 하여 과거와 현재, 미래의 사상을 담아 독자와 더불어 공감이가는 시작이 앞으로 많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지금 기술개발의 치열한 경쟁의 파고를 맞고있어 이러한 시문학에다가 발명이라는 창작의 논리를 문학으로 승화시켜 접목한 발명시는 현시대 정신을 대변하는 발상이라고 하고 싶다.

### 3. 발명시의 대두

인간이 살아오면서 가진 만남, 헤어짐, 사랑, 미움, 어둠과 빛, 또는 강·약의 조절은 과학적 사고방식의 접근이다. 과학의 본질이 음과 양, 강과 약, 몽침과 흠어짐에서 기본원리가 나타난다고 볼때 문헌정신과 과학의 발명정신은 일치한다. 본인은 이러한 문헌과 과학기술인 발명을 결합한 발명시를 한국현대사에 처음으로 시도했다. 최근 과학기술대학, 대학원, 졸업생들 사이에서 문학씨클을 갖고 문헌과 과학을 접근시키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지만 아직 본격적인 활동을 못하고 있다. 아는바와 같이 서양에서의 문헌운동은 과학운동과 일치한다. 14세기부터 16세기 사이 소위 르네상스시대 단테, 셰익스피어, 스펜서가 나왔고 19세기 과학부흥 시대에 영국, 프랑스 독일 등에서 무수한 시인이 등장했으며 20세기에 일어난 모더니즘 시운동도 근본은 과학

정신에서 출발한 것이다.

우리 역사에서도 영, 정 시대에 과학 정신에 가까운 시가 이익, 홍대용, 정약용 등에 의하여 나타났다가 소멸된 적이 있었다. 이제 새롭게 본인이 시도해서 지은 과학기술의 첨단인 발명시가 수록된 “태양이 머문날까지”(길출판사 펴냄)라는 시집중에 발명시 몇수를 소개한다.

## 창조화(創造畵)

문명길 티우려  
 밝은 머리로  
 환상(幻想)의 물감포고  
 넓디넓은 화지에  
 그림을 준비한다

서늘코 따스한 옷  
 혀가 चु추는 음식  
 풍치가 우아한 집  
 부푼 꿈 모두어  
 그림을 그린다

필요한 물질  
 쓸모있는 용품  
 미래의 산물(産物)  
 탄생할 요람(搖籃)찾아  
 그림을 그린다.

사색의 붓이  
 하얀 종이 위로  
 뭉쳤다 퍼질때  
 찰나의 새 생각  
 그림으로 남는다.

## 발명의 모습

그대 어이해  
 앞서 생각하며  
 천리를 들고

빛나는 건가  
 팔다리는 예민해져  
 저 높은 하늘을  
 솟구쳐 날으는가  
 그대 찌들어 앙상했지만  
 이제 보람의 서기(瑞氣)가  
 온몸을 에워싸  
 황금빛이 감들거늘  
 오늘과 내일,  
 그리고 먼 훗날에도  
 찬란한 문명을  
 온누리에 토할지니...

이 두 시편에 있어서 「창조화」는 새로운 발명에 골몰하는 순간의 자세를 읊었고 「발명의 모습」에서는 문명의 진보는 기술을 연구 개발하는데 있으며 그 결과 물질의 풍요와 인간생활을 편리함으로 이끄는 발명을 찬양한 것이다.

#### 4. 끝맺음

시는 전에 누구인지 읊었던 것과 어슷비슷하다면 훌륭한 시가 되지 못한다. 언제나 남이 생각한적이 없는 것을 자기가 제일 먼저 이 세상에 내놓는 것이 시의 생명이다. 그런면에서 아무리 새로운 느낌을 나타낸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말과 말이 반죽이 잘되어 용하게 얹혀있어야 하는 것이 시에는 따른다. 그래서 원고지가 새까맣도록까지 이말이 나올까 저말이 나올까 늘 그 느낌이나 생각이 자연스러워지게 추고에 추고를 거듭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과정을 헤아리면 시라는 것은 원래 짧지만 얼마나 힘든 것인지 모른다. 즉 말과 말이 착 어울어져서 빛나는 조화를 이루어 놓을 때 그것이 독자에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공감의 세계로 들어간다고 하겠다. 사실 말의 발을갈아 거기서 그득한 수확을 거두기는 참으로 벅찬 것이다. 그것은 하루 이틀에 공력을 들였다고 해서 쉽게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평생을 늘 다듬고 또 가다듬어야 하는게 시

작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시는 전문가가 아니라도 취미나 소질을 살려 계속 써보면 날이갈수록 영글어간다. 더욱이 시를 쓰면 자아를 찾아 되새김하고 미래를 겨냥하게되어 영크러진 감정이 해소되기도 하며 남이 모르는 호뭇한 즐거움을 만끽하여 행복한 삶을 가져온다.

우리는 지금 국가경쟁력을 제고해야 하는 시대의 부름을 받고 있다. 경쟁력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기술개발이며 기술개발의 요체는 발명이다. 그러므로 이제 하루속히 모든 국민에게 발명인식을 넓혀 동참케할 때이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 본인은 그동안 발명관계일을 해오면서 남녀노소가 읽기도 편하고 이해가 잘되며 발명분위기 조성에 도움을 주고저 감히 발명하는 요령과 발명의 내용을 시로 표현해 조심스럽게 내놓은바 있다. 이 시편들로서 '93년 11월 한겨레문학을 통하여 시인으로 등단까지 하는 영광을 안게 되었다.

앞으로 이러한 발명과 시를 결합한 발명시가 많아와서 우뚝한 산봉우리처럼 높이 솟아 큰빛을 발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김관형, 「멀고 먼길」 시집(서문 : 정공채), 서울 : 뿌리, 1989.  
 김관형, 「태양이 머문날까지」 시집(서문 : 박계삼, 발문 : 공석하, 해설 : 이만재), 서울 : 길출판사, 1993.

<25p에서 계속>

이상의 영전설의 ③은, 너무 광범위하여 개량의 범위를 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에 비하면 대우설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지만, 개량발명·기술이라고 하여도 약간의 변경이 원래의 발명·기술보다 혁신적인 발명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일률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약간의 문제도 있을 것이다.

(3) 일본의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특허·노우하우계약을 심사하기 위해 만든 가이드라인에 불과하나, 우리나라의 고시는 일종의 법률이다. <♣>